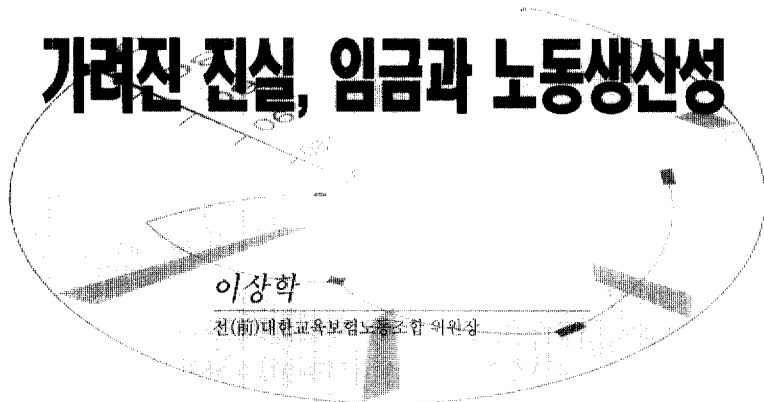


가려진 진실, 임금과 노동생산성



노 동생산성과 임금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노동-경영계의 오랜 논쟁의 하나이다.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인상이 낮다고 노동계는 주장하고 있으며 경총을 위시한 경영측에서는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웃돌고 있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있다. 노동측에서는 물적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을 감안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상승을 보다 높다고 하는 반면에 경영측은 국민경제노동생산성증가율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본간 논쟁의 쟁점은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기업의 대외 경쟁력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영측의 주장은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임금으로 인한 고비용으로 인

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우리경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웃도는 임금을 받고 있어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고, 노동자들이 적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는 점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노동계의 주장은 노동자 임금의 절대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 생산에 기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이는 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명확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 원인은 노동자의 높은 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구조 등 자본이 안고 있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노사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국제 비교를 이용하여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우리는 노동연구원 에서 발표한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추이와 임금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자료가 제한 적이어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임금 - 생 산성과 대외경쟁력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은 될 것이다. 노동과 자본 의 논란이 임금수준과 경쟁력이라는 쟁점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우리는 먼저 주요국의 노동생 산성 추이를 알아보고, 임금수준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제품 단위 당 노동비용이라 할 수 있는 임금-노동생산성의 변화를 국 가간 비교하여 보도록 하겠다.

(표 1) 주요국의 노동생산성 추이(제조업)

(단위: 1980 = 100.0)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80	100.0	100.0	100.0	100.0
81	122.2	106.0	102.4	106.6
82	114.1	111.5	103.4	107.6
83	124.9	112.0	107.4	115.8
84	134.5	114.2	116.6	115.5
85	136.5	116.2	121.7	118.1
86	149.0	117.9	124.0	126.8
87	160.6	113.3	131.1	135.3
88	177.0	115.1	146.2	142.4
89	189.3	119.0	154.9	155.4
90	213.2	123.1	161.0	167.1
91	243.1	126.8	165.1	183.1
92	269.5	129.3	156.2	190.3
93	291.0	128.3	153.9	196.4
94	322.6	125.4	158.5	203.5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지표, 격조
 * 주: 각국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동일 기준에 의한 것이다.
 * 단위: 주

(표 1)에서 우리는 1980년을 100으로 한 각국의 노동생산성 지수의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 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경쟁 상대국인 대 만의 노동생산성 지수 변화를 보면 한국은 지난 14년 사이에 노동생산성이 3.226배 높아졌고, 미국은 1.254배, 그리고 일본은 1.585배, 대만은 2.035배 높아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빠 르게 높아졌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대 만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90년 이후 에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 나고 있어 최근 노동생산성이 크게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주요국의 월평균 임금총액 추이 (제조업: 미국 달러화 기준)

(단위: 미국 달러)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대만
80	241	1253	1079	223
81	259	1381	1178	260
82	276	1434	1082	268
83	292	1538	1175	278
84	304	1624	1230	307
85	310	1678	1256	319
86	334	1720	1312	370
87	400	1766	2165	484
88	537	1819	2487	595
89	732	1866	2440	737
90	835	1919	2431	820
91	941	1976	2732	913
92	1023	2041	2842	1072
93	1103	2111	3340	1092
94	1273	2200	3704	1161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1996
 * 주: (1) 미국은 주당임금 * (30.47)로 계산하였음
 (2) 미국의 월임금은 단위기간(또는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월근로시간이 고려된 월지급 임금이라고 단위기간(또는 시간)당 임금을 비교 하기 어렵음 주의

〈표 2〉에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비교할 수 있다. 94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일본은 한국의 3배에 가까운 3,704 달러이고, 미국은 한국의 1.7배인 2,200 달러이다. 대만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 한국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심하게는 1/3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어 한국의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부리가 있어 보인다(월 노동시간을 고려한다면 한국의 노동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에서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음으로 각국의 임금이 변화하는 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임금은 5.28배 인상되어 가장 높은 임금인상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만은 5.21배가 인상되어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일본이 3.43배, 미국이 1.76배 인상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임금은 지난 10여년 동안 상당히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여년간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한국과 대만은 임금도 높아졌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졌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임금과 노동생산성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이 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나라들의 경제발전 단계와 노동시장 상황, 사회민주화의 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기간 동안에 임금인상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노동생산성도 높아졌다. 경영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음을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의 절대액은 낮은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에 임금이 많이 인상되었다. 경총 등에서 주장하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한국의 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달러로 표시한 임금 인상은 한국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한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달러표시에 의한 월평균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경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임금인상과 함께 노동생산성도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높아져왔고 한국 노동자의 임금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인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한국은 경쟁대상국에 비해 임금이 더 높아졌는지, 아니면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임금-노동생산성 중 어느것이 더 높아졌는가 하는 것이 노동-경영측의 논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 이

유가 고임금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있는가를 단편적으로나마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노동생산성-임금의 상대적 인상폭일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노동자들이 경쟁상대국에 비해 과거보다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생산성은 임금인상에 걸맞게 높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가?

임금의 절대 수준이 낮다는 주장도 맞고, 임금인상 폭이 주요 교역 대상국에 비해 높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음을 위의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인상 - 생산성향상 중에서 어느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을까? 같은 기간 동안에 기업의 노동비용이 더 많이 늘어났는가, 아니면 생산성이 더 높아졌는가를 비교하여보자. 노동비용이 증가하였지만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갔다면 기업의 경쟁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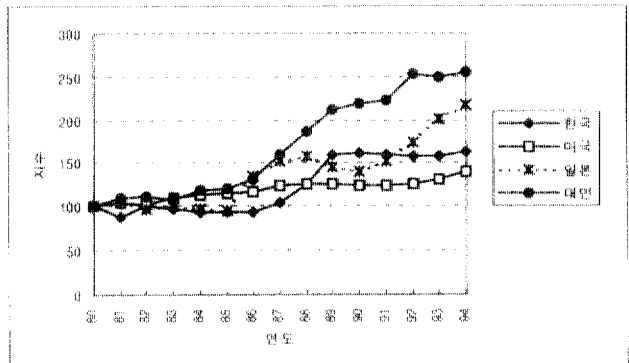
향상되었을 것이고 만약 그 반대라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은 나빠졌을 것이다. 임금인상 - 생산성향상 관계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주요 교역 대상국과 한국 기업을 비교하여보자. 우리는 각국의 (임금지수 / 노동생산성지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위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94년 현재 한국의 임금지수/노동생산성 지수의 값이 대만, 일본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보다는 약간 높지만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비해 임금인상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만과 일본과 비교하여 한국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비해 임금인상이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요 경쟁 상대국과 비교하여 노동생산성에 비해서 임금 인상율이 낮다면 한국 기업은 국가간 경쟁에서 노동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상실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국내의 임금인상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아졌다면 한국 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에서 국제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노동비용보다 노동의 생산성이 다른 경쟁 상대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림 1〉 임금/생산성 상대지수의 비교



한국은 87~89년 사이에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다. 역압적인 구조에 의해

억눌려왔던 노동자의 요구가 폭발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이 단기간에 상당히 빠른속도로 인상되었다. 87~89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졌던 때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을 것이라는 점은 어찌편당연할 것이다. 억압적 정치구조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억압되었다가 정치적 공백의 영향으로 임금인상 요구가 폭발한 시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90년 이후에는 임금인상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따라 잡지 못하면서 임금/노동생산성 비율이 완만하나마 하락하고 있어, 90년 이후에는 임금보다 노동생산성 증가가 더욱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80년대 중반이후 임금/노동생산성의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한국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87~89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는 경영층의 주장이 일면 타당하였다고 할 수 있었으나 90년 이후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위의 그래프가 잘 보여주고 있다. 90년 이후 한국의 기업들은 일본, 대만 등에 비해 단위당 노동비용이 낮아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제한적인 자료와 한정된 범위에서의 논의이지만 임금-노동생산성이라는 관계의 국제 비교 결과는 경영층의 주장이 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연초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던 한보사

태 이외에도 삼미, 우성, 유원, 한신공영 등이 부도처리되었으며, 대농, 진로, 기아가 부도유예 관정을 받는 등 거대 재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한국 굴지의 대재벌들이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차입위주의 경영으로 인한 부실한 재무구조를 꼽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어보인다 (한국기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96년 24%인데 비해 미국은 38.5%, 일본은 32.6%, 대만은 53.9%로 우리보다 크게 높다. 더욱이 재벌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은 18.2%밖에 안된다. 주진우). 한국의 재벌들은 정경유착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한 "똥어발식 경영"으로 재벌의 몸집을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었고, 기술개발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장사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업종이던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경영의 결과가 오늘의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 경영자 자신에게 있었음에도 기업들은 그간 자기들의 잘못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기업경영 방식과 재벌 중심의 정경유착적 경영에 있었음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기업의 빚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무책임한 주장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